

전주 정체성 담은 시립미술관 건립 '착착'

시, 건립추진위원회·자문위원회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2025년 완공 계획

전주시민들을 위한 예술공간이자 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첫 회의를 개최해 성공적인 미술관 건립 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첫 회의를 개최해 성공적인 미술관 건립 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각각 관련 전문가 10여 명씩으로 구성됐다.

건립추진위원회는 미술관의 △운영 △전시 △건축 △예산 △관련 법 △사회·문화·경제적 효과 등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지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전주시민들을 대표해 미술관 건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립미술관은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이 위치한 약 5500㎡ 부지 내에 건축면적 80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완공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시립미술관을 '글로벌과 전주형 커뮤니티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글로벌 동향을 포함하는 동시대 미술관 △다양한 계층의 전주 시민

들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관광객들의 특별한 예술세계 감상 및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전주한옥마을과 더불어 전주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상반기 문화

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대상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이후 올 상반기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등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문가뿐 아니라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전주만의 정체성을 담은 시립미술관 구상안을 만들어내길 것"이라며 "전주시립미술관을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이자 가장 전주다운 미술관, 관광 거점으로 잘 준비해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립미술관 예정부지인 전주종합경기장은 지난 1963년 전국체전을 위해 시민들의 성공을 모아 건립된 시설이다.

시는 이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현재 공사에 착수한 '시민의 숲 1963'을 비롯해 전주컨벤션센터, 전주시립미술관 백화점 호텔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정은성기자



12일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범기(왼쪽부터) 후보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정의당 서윤근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 본격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우범기·국민의힘 김경민 정의당 서윤근, 완산구 선관위에 후보 등록 완료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각 당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국민의힘 김경민, 정의당 서윤근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전을 다짐했다.

김 후보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개편해 전주시경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기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부부장 아래 1팀, 10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미시적인 조직구성으로 미래지향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을 개편하겠다"면서 "전주시경제공사는 기존 조직에 신사업에너지사업부, 지역경제순환사업부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는 "1000년 전라도의 수도였던 전주의 위상을 되찾고 잘 사는 전주 실현이라는 큰 꿈을 전주시민과 함께 이뤄나가고 싶다"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며 보다 활력 있고 보다 잘 사는 전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서윤근 후보 또한 이날 오전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북유럽식 복지도시 전주"와 "기후위기 시대 녹색전환도시 전주"를 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대한방직부지를 전주시 매입을 통한 공공개발로 영화영상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도심 조성을 위한 토건위주의 개발공약과는 다른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우 후보는 전주 해상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경제기획원,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북도 정부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도 이날 오전 후보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후보등록 후

한편, 이날 전주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친 우범기, 김경민, 서윤근 세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약속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김윤상 기자

취약계층 어린이 치아 건강 돕는다

전주시보건소·전주시치과과의사회,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실시

전주지역 25개 치과의료기관이 저소득 아동들의 치아건강을 지켜주는 주치의가 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역 내 저소득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위해 보건소와 전주시치과과의사회가 협력해 치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구강관리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시는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 지원 항목은 △레진 인레이 △크라운 △브릿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전주시치과과의사회와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역 내 25개 치과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5월 현재까지 전주지역 저소득층 아동 108명이 대상으로 선정됐

며, 선정된 아동들은 사업에 참여한 25개 치과의료원에서 치료진료를 받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구강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이 소진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3-281-6321)로 문의하면 지원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치아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우수 논문 선정

전북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지역기업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에 힘쓴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이 우수한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무주 삼유천재해복구공사 관리 감독 허술

각종 구설·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무주군 적상면 삼유천재해복구공사가 각종 구설과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삼유천재해복구공사는 총사업비 255억여원을 투입, 지난 3월 2일에

등으로 주위가 온통 어수선하고 위험물들이 그대로 노출돼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비산편지를 잡아줄 살수차는 물론 안전간판대도 눈에 띄지 않고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감독관도 보이지 않았다.

주민 이모씨는 "무주군 삼유천재해복구공사가 6월 지방선거로 인한 군수 공백이 직원들의 나태함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며 "바꾸어 포인식 공사를 지양하고 사업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잘 활용해 안전수칙에 민전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유천은 주민들의 삶이 녹아든 생명수와 같은 안식처이자 놀이터"라며 "삼유천재해복구공사가 안전하고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기철 주무관은 "공사기간이 1년 단기로 균형 자체감독으로도 충분하다 판단되어 별도의 감리는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행사측은 현장사무실은 선정만 해 놓고 현재 입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용성 프로폴리스의 기능성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건강기능식품국제학술지(IFSBF) 제3호의 우수 논문(논문명: Effects of Water-Soluble Propolis on tert-Butyl Hydroperoxide-Induced Acute Oxidative Stress in Mice)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논문은 연구원이 수용성 프로폴리스 전문회사인 유니크바이오텍(주)이 개발한 '수용성 프로폴리스'에 대한 동물수준 효능평가를 지원한 성과물이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병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액과 효소 등을 혼합해 만든 천연물질로, 항균과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유니크바이오 수용성 프로폴리스'는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이 잔류하지 않고 유효제나 합성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니크바이오텍(주)의 수용화 기술이 적용됐다.

연구원은 이 유니크바이오 공법이 적용된 수용성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급성 산화스트레스 및 염증이 유도된 생쥐 모델에서 급성 산화스트레스 및 전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프로폴리스가 산화스트레스 감소 목적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원에서 기술지원한 유니크바이오(주)의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료 및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1억9000만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나선다

전북도·진안군·지자체 의료원과 공공임상교수제 업무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본격 나섰다.

12일 전북대병원에서 따르면, 병원은 전라북도·진안군,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의료원 등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임상교수제 발전을 위해 전라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전북대병원 본관 2층 온고홀 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희철 병원장파 이석 진료처장, 양종철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이장우 보건의료과장, 진안군 박현숙 보건소장, 박경숙



군산의료원장,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조백환 진안의료원장 등 각 기관의 주요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및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공공임상교수 운영 △공공임

상교수제를 통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공공임상교수제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에 소요되는 의료 인력을 감염병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으로 하고 진료과목과 인원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 향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협약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전라북도와 진안군,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 등의 기관장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의 성공적 수행과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보건 의료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 의료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요조·임경선 작가와 함께 하는 책 여행

전주시, 확산숲속시집도서관 '우리 인생의 책' 주제 강연 가져

전주 곳곳에 위치한 이색도서관을 여행하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유명 작가들의 참여로 한층 풍성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12일 확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 시민·관광객 30명을 대상으로 요조 작가와 임경선 작가를 초청해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책 여행'의 두 번째 강연을 했다.

요조·임경선 작가와 함께하는 이번 책 여행 프로그램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여행이 일상화된 온라인 도서관 여행자들을 위해 영향력자와 협업해 전주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2명의 작가는 '우리 인생의 책'을 주제로 평소 작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눴다.

가수로 데뷔한 요조 작가는 현재 제주도 서울에서 서점 책방 무사를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



서로는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아무튼 딱북이 △오늘도, 무사 등이 있다. 12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지난 2005년부터 에세이와 소설 등을 쓰고 있는 임경선 작가는 △평범한 결혼생활 △다정한 구원 △가만히 부르는 이름 등의 저서가 있다.

이날 강연에 이어 △김물길 작가(6월 8일) △ITBC 트레이블러 구성작가 이만도주명(7월 6일) △유지혜 작가(8월 30일) 등이 참여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급식 지원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맛 좋은 급식이 제공된다.

전주시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전주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16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했다. /김윤상 기자